

##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2)

- 읽을 말씀 마 5:13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소금의 의미와 소금이 되어야하는 이유 그리고 올바른 소금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소금의 맛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4) 엄중한 경고-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맛을 잃는 것은 팔복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그 뒤 산상수훈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 건강보다 이 맛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왜 소금의 맛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①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팔복의 사람으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맛을 잃은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캐더린 쿨만은 「복 있는 사람들」에서

“사람은 자신의 품성에 소금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하여 동세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그 사람이 자신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을 할 때, 비로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 의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불꽃같은 눈으로 ‘팔복의 사람인가?’ 와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하는가?’ 를 보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맛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②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는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에 세뇌된 자들은 맛 잃은 소금이 버림받는다라는 말씀 역시 쓰임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맛이 팔복의 특성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불신자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주님이 친히 경고한 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마 5:20). 이뿐 아니라, 이 구절과 유사한 구절들의 전후 문맥을 보면 모두 구원받지 못하거나 버림받아 지옥에 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막 9:50, 눅 14:34). 그러므로 맛 잃은 소금이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쓰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영혼이 버림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본문의 뜻을 성경 그대로 인정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헤르만 리델보스는 「여수론 성경주석 시리즈 마태복음 (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짠’영향이 방출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천국에서의 장래가 없다.”고 썼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것은 앞에 나오는 팔복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뒤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교훈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14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비유하셨

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에서 ‘아버지의 뜻’은 산상수훈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 뒤 23절의 ‘불법’은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들에 대해 해석해 주신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장 24-27절 산상수훈의 결론부분에서도 반복하여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맛 잃은 소금, 즉 팔복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는 자가 버림받는다고 하신 말씀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 ③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힌다!

맛 잃은 소금은 하나님도 존중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발에도 밟힐 뿐입니다. 맛 잃은 소금들이 넘쳐나는 한국 교회는 정부와 언론에게, 전교조와 국민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밟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마 5:16). 반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은 것처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됩니다(롬 2:23-24). 날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 5) 오늘날 교회들의 가슴 아픈 현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도는 약 3.5%입니다. 그런데 이 염분만 있어도 나머지 96.5%의 바닷물을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5%의 진짜 성도만 있어도 이 사회는 병들지 않습니다.

1899년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0.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부정과 부패가 없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현재 기독교인

의 비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온통 거짓투성이고 악해졌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인, 언론,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타락이 이런 기가 막힌 나라를 만든 주범입니다. 슬프게도 현재 한국 교회는 세상보다 더 부패했고, 오래전부터 교단들과 목회자들은 안위를 위해 침묵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음해를 받지 않아서 초대형교회로 성장했다면,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싱클레어 퍼저슨의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아지고 힘이 커져야만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소금을 예로 든 것은, 그리스도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값이 싸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주변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무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말에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철저히 팔복의 사람이 되고 철저히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의인 열 사람이 되어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들을 깨우고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 ● 나눔과 적용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지키고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맛 잃은 소금은 아닌지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됴됨이로 다른 이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